

| 기획논문 |

유토피아와 공동체에 대한 상상: 위화(余華)의 『원청(文城)』을 중심으로

Imagination of Utopia and Community:
Focusing on Yu Hua's 『Wencheng』

김명희

Kim Myoung-Hee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디스토피아의 재현과 폭력 서사의 의미
3. 공동체의 수호와 연대의식
4.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희구
5. 나가는 말

| 국문 초록 |

이 글은 위화의 『원청(文城): 잃어버린 도시』에서 ‘유토피아와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디스토피아의 재현과 폭력 서사의 의미, 공동체의 수호와 연대의식,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회구, 이 세 가지 측면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디스토피아의 재현과 폭력 서사의 의미를 통해서는 청말 민초시기의 혼란한 사회상과 어두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세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독자에게 환기시켰고, 공동체의 수호와 연대의식에서는 각자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는 곳이니, 온전한 보전을 위해 연대의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회구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한 관계성과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규명했다.

『원청』은 미완의 작품이고, 작품의 결말은 열린 구조로 이루어져 있

으며, 작가는 주인공의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지 않았다. 유토피아에 관한 서사는 어떻게 하면 그 시대의 사회 병폐와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는 데에서 시작한다. 『원청』은 위화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국에 부족한 ‘계약 정신’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인간관계를 꿈꾸며,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온정(溫情)서사를 그려내고 있다.

주제어

위화, 원청(文城), 유토피아, 공동체, 평등한 관계성

1. 들어가는 말

위화(余華)¹는 2013년 『제7일(第七天)』을 발표한 지, 8년 만에 『원청(文城): 잃어버린 도시』(2021)를 발표하였다. 위화의 여섯 번째 장편소설인 『원청』은 작가가 1998년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 완성된 소설이다. 작품의 창작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여, 쓰다가 접어 둔 상태로 『형제(兄弟)』(2005)와 『제7일』(2013)을 먼저 발표했다. 전 세계를 3년 넘게 점령했던 COVID19 시기에 위화는 베이징의 집에서 이 작품 『원청』을 완성하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위화에게는 중국의 한 세기, 즉 중국의 100년을 소설에 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소설 『인생(活着)』²에서는 1940년대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國共內戰)을 시작으로 하여, 1950년대의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1960년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시기를 겪어낸, 중국 민중들의 삶을 주인공 푸구이(福貴)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담담히 그려내었다. 『형제』(전2권)에서는 마오쩌둥(毛澤東)이 통치하던 사회주의 시기 17년과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했던 개혁·개방 초기의 중국의 현실을 이복

1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위화는 1960년 중국 저장성(浙江省)에서 태어났다. 1983년 단편소설 「첫 번째 기숙사(第一宿舍)」를 발표하여 작가의 길에 들어선 그는 초기 실험성 강한 중·단편소설을 잇달아 발표하여 중국 '선봉(先鋒)문학'의 대표 작가가 되었다. 1992년 발표한 장편소설 『살아간다는 것(活着)』은 장이머우의 감독을 통해 영화 <인생>으로 만들어져,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그다음 발표한 『허삼관 매혈기(許三觀賣血記)』(1995)는 출간 후 10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중국소설로 선정되었다. 이후 중국 현대사회를 예리하게 그려낸 『형제』, 『제7일』을 잇달아 발표하여 중국 사회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2021년, 8년 만에 발표한 『원청』은 위화의 첫 번째 전기소설로 그해 중국 문학계의 중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모엔·옌토키와 함께 중국 3대 현대작가로 꼽히는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 45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2 『인생』의 한국어 번역본 제목은 원래 『살아간다는 것(活着)』이었다. 한국에서 1997년에 출판되었는데, 장이머우 감독이 영화 <인생>으로 작품을 만들어 유명해지면서, 출판사가 나중에 한국어 번역본의 제목을 『인생』으로 바꾸었다.

형제인 송강(宋鋼)과 리광터우(李光頭)의 대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두 인물의 삶을 통하여, 당시의 중국 현실을 짙진하게 묘사하였다. 『제7일』은 2000년대에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한 지 35년이 넘는 시점에서 주인공 양페이(楊飛)가 어떻게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이렇게 보면 위화에게 남은 것은 중국 현대의 시초를 열었던 신해혁명(辛亥革命)과 5·4시기에 관한 소설적 창작이 공백으로 남게 된 셈이다. 소설 『원청』의 시대 배경은 청말 민초(清末民初)이다. 청말의 신해혁명(1911.10~1912.2)은 왕조 체제인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최초의 공화제 정부인 중화민국(中華民國)을 수립한 혁명이다. 『원청』은 중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청나라 말기와 신해혁명, 그리고 여러 군벌이 각 지역을 통치했던 북벌전쟁의 시기가 작품의 시대 배경이다. 중화민국 초기의 혼란한 시대상과 그 시기를 겪어낸 남녀 주인공, 린샹푸(林祥福)와 지샤오메이(紀小美)의 삶과 그 당시 중국 민중의 참혹한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다.

『원청』은 『형제』와 『제7일』을 크게 뛰어넘어 『인생』에 접근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초판 50만 부가 순식간에 다 팔리는 기염을 토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과 동시에 드라마로 각색되어 총 40회(1회 45분)의 드라마로 제작 중이고, 2025년 3월에 방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원청』이 “역사와 현실에 대한 진실한 반영이며, 매우 높은 가독성을 지녔다”, “역사에 대한 서정적 필치와 복고적 자세로 문학적 가치를 표현하였다”는 호평을 받거나³, “위화의 문학적 명예를 깎아먹었다”, “위

3 高玉, 「余華長篇小說新作《文城》的承續與創新」,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3年 第63卷 第1期; 叢治辰, 「余華的異變或回歸—論《文城》的歷史思考與文學價值」, 『中國當代文學研究』, 2001年 第5期.

화의 서사 한계가 드러났으며 창작 능력이 쇠퇴했다”는 악평을 받으며, 중국 문단과 학계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선행연구⁵⁾는 의외로 많지 않다.

위화의 장편소설 『원청(文城): 잃어버린 도시』(2021)는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清末民初), 군벌이 통치하는 혼란한 북벌전쟁의 시기에 북방의 청년 린상푸(林祥福)가 남방에서 온 지샤오메이(紀小美)를 우연히 만나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샤오메이는 딸을 낳은 후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소식이 두절된다. 린상푸는 태어난 지 한 달이 겨우 넘은 딸을 업고 젓동냥을 해 가며, 아내인 샤오메이가 살았다는 마을 ‘원청(文城)’을 찾아 길을 떠난다. 소설은 전기(傳奇)소설의 형식으로 남녀 주인공의 행적과 여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글은 위화의 『원청(文城): 잃어버린 도시』에서 ‘유토피아와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디스토피아의 재현과 폭력 서사의 의미, 공동체의 수호와 연대의식,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회구, 이 세 가지 측면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4 陳蔚文, 「『文城』透支了余華的文學信譽」, 『文學自由談』, 2021; 郭雨欣, 「『文城』與余華的敘事限度」,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3年 第24卷.

5 김봉연, 「위화(余華) 소설의 상수와 변수—《원청(文城)》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譯叢刊』 第53輯, 2023; 김현주·윤호염, 「〈원청(文城)〉에 묘사된 하늘과 땅의 상징성 試探」, 『동아인문학』 68집, 2024.

2. 디스토피아의 재현과 폭력 서사의 의미

위화의 『원청』은 전체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의 제목은 <원청(文城)>이고, 총 7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부의 제목은 <또 하나의 이야기(文城 補)>이고,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의 편폭은 전체 소설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1부와 2부를 모두 합하면 전체 111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설의 서사 관점에서 보자면, 1부는 남자주인공 린샹푸(林祥福)의 이야기이며, 2부는 여자주인공 지샤오메이(紀小美)의 이야기이다.

『원청』은 전기(傳奇)소설의 색채가 강한 작품이다. 전기소설은 “기이함을 추구하는 ‘상상류’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류’가 중심을 이루는”⁶ 장르인데, 『원청』은 이와 같은 전기소설의 제재와 형식을 띠고 있다. 전기소설이 부여한 기이함은 인간 보편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고, 이 속에서 피어나는 남녀간의 사랑은 어떤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인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 또한 기이함과 사랑이 배태한 이야기는 자연스레 운명의 역할이 강조된다. 또한 피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역사 현실은 운명만큼 구조화된 폭력으로 이 미지화된다.⁷

북방에 살고 있던 린샹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집안의 전답을 돌보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가 스물네 살이 되었을 때 젊은 남녀 한 쌍이 그의 집 앞에 찾아왔다. 남매라는 그들은 경성(京城)에 있는 이모부를 찾아 북으로 가는 길인데 하룻밤만 재워 줄 수 있냐고 물었

6 이시찬, 「中國文學史에서 傳奇 명칭에 관한 재고찰」, 『漢文教育研究』 제26號, 2006, 582쪽.

7 김봉연, 「위화(余華) 소설의 상수와 변수—《원청(文城)》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譯叢刊』 第53輯, 2023, 38쪽.

다. 여동생은 샤오메이(小美), 오빠는 아창(阿强)이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날 샤오메이가 병에 걸려 일어나지를 못하고, 아창은 린샹푸에게 잠시 샤오메이를 거두어 달라고 부탁하고, 경성에서 이모부를 찾은 뒤 데려가겠다고 했다. 결국 아창은 혼자서 북쪽으로 길을 떠났다. 오빠를 기다리며 생활하던 샤오메이는 린샹푸와 좋은 감정이 생겨 서로 사랑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딸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 샤오메이는 사라져 버리고 소식이 두절되었다. 린샹푸는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 주려고, 젓먹이 아이를 데리고 샤오메이를 찾아서 그들이 왔다는 남쪽 물의 고장, 원청(文城)을 찾아 길을 떠난다. 그러나 그 여정의 과정에서 샤오메이도 원청도 찾지 못한 린샹푸가 정착한 곳이 바로 시진(溪鎮)이라는 마을이었다.

소설 『원청』의 시대 배경은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초기의 역사적 상황이다. 이 시기의 중국은 신해혁명으로 인해 장기간 유지되어 왔던 왕정체제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정 체제가 수립되었으나, 북양군벌(北洋軍閥) 등 각 지역을 지방의 군벌들이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혼란이 극심한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위화는 이러한 역사 시기가 중국의 역사 중에서 드문 시기라고 여겼다. 작품은 이 시기에 벌어진 신해혁명, 5·4운동, 공산당 성립 등 중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과 맥락들을 삭제하고, 토비(土匪)와 군벌(軍閥)이 가져다준 혼란과 고통을 전면에서 부각시킨다. 사실 위화는 작품 속에서 역사 현실 자체보다 그 현실 속에서 수십 년을 힘겹게 견뎌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밀도 있게 조명해 왔다. 위화에게 역사는 소설의 배경일 뿐이며, 그가 중점적으로 묘사한 것은 중국의 민중들이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살아가는 당대 현실의 역사는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운명과도 같으며, 그것은 고난의 상징이자 삶에 가해지는 폭력에 다

름 아니다.

위화는 『원청』에서 역사 현실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들의 고난의 삶을 묘사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적이고 불가역적인 힘으로서의 역사는 마치 운명처럼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군벌의 혼전과 토비가 난무하는 당시의 혼란한 시대 속에서 주인공 린상푸와 샤오메이, 그리고 시진(溪鎮) 마을 사람들이 겪어냈던 당시의 삶을 전기소설의 필치로 그려내었다.

소설 『원청』은 린상푸가 살았던 황하(黃河) 북방의 마을과 그가 샤오메이를 찾아 나서다 정착하게 된 남방의 시진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작품은 선과 악, 질서와 혼돈이 공존하는 마을의 민초(民草)들의 삶과 운명을 묘사하고 있다.

디스토피아(dystopia)는 현실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허구로 그려냄으로써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문학작품을 말한다. 문학과 예술의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의 처참한 인식에서 시작한다.⁸ 아도르노(T.W.Adorno, 1903~1969)는 예술의 유토피아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예술에는 그 유토피아-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어둡게 드리우고 있기 때문에 예술은 그 모든 매개를 관통하면서 가능한 것을 축출하는 현실적인 것에 대항하여 가능한 것의 기억으로, 이를테면 파국적 세계사의 상상적 복원과 같은 것으로, 또 필연성의 속박 때문에 되지도 않고 그 속박 때문에 불확실하기도 한 자유로 남아 있다. 항구적 파국에 대한 긴장 속에서 예술의 부정성은, 어둠에 대한 예술의 참여는 같이 세워진다.⁹

8 문광훈, 『예술의 유토피아-아도르노의 문제의식』, 세창출판사, 2024, 17쪽.

9 아도르노, 『심미적 이론』, 204쪽; 문광훈, 『예술의 유토피아-아도르노의 문제의식』, 세

아도르노에게 예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가능한 것의 기억”이며, “과국적 세계사의 상상적 복원”이다. 예술은 과국적 세계사를 고발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과국적 세계사의 상상적 복원”이기도 하다. 이것이 “어둠에 대한 예술의 참여”이다.¹⁰

위화는 “문학은 독자에게 현실사회의 참혹함과 고달픔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함께 보여 줘야 한다”¹¹고 했다. 그는 문학작품이 가볍고 유쾌한 이야기만을 전달하지 않고, 왜 현실사회의 참혹함과 고달픔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원청』에서 디스토피아의 재현은 폭력 서사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청말 민초시기 역사 속 현실사회의 참혹함과 폭력의 잔혹함·고달픈 민중의 삶이 여실히 묘사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원청』에 나타난 디스토피아의 재현이 어떤 폭력 서사의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폭력 서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원청』에서는 토비(土匪)들이 마을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묘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작품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무협소설의 전투 장면을 연상시키게 하거나, 소설의 폭력적인 장면 묘사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게 만드는 잔인함과 잔혹함이 서술된다. 위화는 『원청』에서 왜 이처럼 잔혹한 폭력 서사를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1980년대 초기 중단편소설에 나타난 위화의 폭력 서사는 1990년대의 장편소설 창작에서는 잠시 멈추었으나, 『원청』에 와서는 폭력 서사로 다시 나타났다. 『원청』에 나타난 디스토피아적 현실은 토비들의 삶을

창출판사, 2024, 147쪽.

10 위의 책, 147쪽.

11 위화, [특별대담] 중국 현대문학 대표 작가 위화, 연세 인문학 아카이브, <https://www.youtube.com/watch?v=xmQi3rqdiHg>

재현하는 과정에서 잔혹한 폭력 서사의 양상을 띠고 있다.

청나라가 무너진 뒤 전란이 그치지 않고 토비가 곳곳에서 기승을 부렸다. 토비들은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들을 납치하여 고액의 몸값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딸이 토비에게 욱보일까 봐 결혼을 서둘렀다. 린상푸가 시진마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백여 집에서 젖을 얻어먹여 키웠다고 하여 딸의 이름을 린바이자(林百家)라고 지은 린상푸는 시진마을의 최고 지도자이자 상인회의 회장인 구이민(顧益民)의 큰아들인 구통넨(顧同年)과 딸을 약혼시키기로 하였다. 린바이자는 열두 살, 구통넨은 열다섯 살이었다. 시진마을에 정착한 린상푸는 목공소를 열어 생계를 해결하였고, 북쪽 고향에서 가지고 온 은표(銀票)와 자본으로 시진마을에서 가까운 완무당(萬畝蕩)이라는 땅의 전답을 1,000여 무(畝)¹²나 사들였다. 토비들이 기승을 부리자 시진마을의 최고 지도자 구이민은 마을의 민병대를 조직하였다. 토비들의 무리 중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던 장도끼(張一斧)는 시진마을을 한 차례 습격하였다가, 시진마을 민병단(民團)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물러났다. 또한 구이민이 여덟 명이 드는 가마를 타고 다니는 것이 부러웠던 장도끼는 구이민을 납치하고 몸값을 요구하였는데, 린상푸와 함께 시진에서 목공소를 하던 완무당의 치자촌(齊家村)으로 이사 온 천용량(陳永良)이 묶여 있던 구이민을 빼돌리자, 반란을 일으킨 치자촌을 토벌하기로 작정한다. 일방적으로 치자촌 마을 사람들을 토벌하는 장도끼와 토비(土匪)들의 잔혹한 폭력 서사를 살펴보자.

토비들은 걸으면서 총을 쏘거나 도끼를 휘둘렀고 마을 사람들은 필사적으

12 중국의 토지 면적 단위. 1무는 약 667제곱미터이다.

로 도망쳤다. 총소리에 자기 아이가 쓰러지는 걸 본 여자들이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달려들자 장도끼는 손에 든 도끼로 인정사정없이 그들을 내리찍었고 다른 토비들도 긴 칼로 찔렀다. 새빨간 피가 허공으로 튀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중략) 어떤 여자는 아이를 안고 뛰기 시작했는데 장도끼가 아이 머리를 쳐 피가 솟구치고 자기 얼굴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알지 못했다. 머리 없는 아이를 안고 뛰면서도 아이가 무사하다고 생각하며 마을을 빠져나갔다.¹³

토비들은 새끼 양을 끌어내듯 스무 명을 끌어냈다. 그런 다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긴 칼로, 머리를 자르거나 창으로 가슴과 배를 뚫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어머니 배 속에서 찢려 죽었다. 창이 뺏히지 않으면 토비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몸을 발로 누르며 거칠게 뽑아냈다. 200여 명의 피가 허공으로 솟구쳐 타작마당 사방의 나뭇잎을 적셨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에서 핏방울이 떨어졌다. 선혈은 타작마당의 흙을 붉게 물들이고 노인의 백발과 아이의 동공, 여인의 창백한 얼굴도 붉게 물들었다.¹⁴

위의 두 장면은 토비인 장도끼가 완무당의 치자춘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잔혹함을 여실히 묘사하고 있으며, 토벌을 당한 치자춘 마

13 余華, 『文城』,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21, 206쪽. “大群土匪走來時又是朝人開槍又是揮刀砍人, 村民亂竄逃命, 那些女人們, 看見自己的孩子在槍聲里倒地, 發出淒厲的叫聲, 一個個扑了上去, 手持利斧的張一斧對准扑上來的女人亂砍, 其他土匪也用長刀砍向她們. 四濺的鮮血讓空氣里飄滿血腥氣息. (中略) 一個女人抱着孩子跑來, 張一斧上去砍下孩子的頭, 孩子的鮮血噴射而出, 女人滿臉是血, 她渾然不覺, 抱着無頭的孩子仍在奔跑, 她以為孩子安然無恙, 跑出了村莊.”

14 余華, 『文城』, 207쪽. “土匪如同牽出羔羊一樣, 一次拉出二十個人. 土匪揮舞長刀, 砍下一個個老少人頭, 還有土匪扔出梭鏢, 穿透一個個男女的胸背. 尚未出生的孩子, 被土匪戳死在母親肚子里. 梭鏢拔不出來的, 土匪擡腳蹬向尚有氣息的身體, 拔出梭鏢. 兩百多人的鮮血在空中飛濺, 濺滿曬谷場四周的樹葉, 又從風中搖晃的樹葉滴落下來. 鮮血染紅曬谷場的泥土, 染紅老人的白髮·孩子的瞳孔和女人蒼白的臉.”

을 사람들의 처참한 상황을 잔인하게 보여 주고 있다. 머리 없는 아이를 안고 뛰면서도 아이가 무사하다고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내달리는 아이의 엄마와 임산부의 배를 찢러 배 속의 생명인 아이까지 찢러 죽이는 묘사는 그 잔혹함이 극에 달한다. 또한 천용량은 구이민을 시진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가에서 북적거리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장도끼 무리에게 가족을 잃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한 여자가 자기 마을에서도 끔찍한 일이 있었다며, 장도끼 무리가 남자들 10여 명을 숲으로 끌고 가 줄로 묶고 바지를 찢은 다음 칼로 항문을 찢러 창자를 꺼내더니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아당겨 끌어내린 뒤 그 끝에서 창자를 묶었다고 했다. 그러고나서 손을 놓자 나뭇가지의 탄성으로 창자가 딸러 나와 줄줄이 나뭇가지에 걸렸고 그 남자들은 비명을 지르다 죽었다는 거였다.¹⁵

토비들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곱게 죽이지도 않고, 인간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포로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의 창자를 꺼내어 나뭇가지에 묶어 잡아당겼다가 놓아 버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다. 토비인 장도끼 무리가 치자촌을 토벌한 결과는 참담했다.

여자들 10여 명은 토비에게 윤간당한 뒤 머리를 베었다. 불바다로 변한 치

15 余華, 『文城』, 211쪽. “一個女人講述她們村庄的悲慘情景, 十多個南人被張一斧土匪趕進樹林, 捆綁起來后扒掉他們的褲子, 土匪用尖刀劃開他們的肛門, 挑出里面的腸子, 系在用手壓住的樹梢上, 土匪一松手, 腸子被樹枝的彈力拉出, 一串一串掛在樹枝上, 這十多個男人先是嚎叫后是嗚咽死去。”

자촌 곳곳에서 탁탁 터지고 갈라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치자촌 주민 600여 명 가운데 249명이 참혹하게 죽고 강물과 풀, 나뭇잎, 흙이 새빨강같이 물들었다. 시체가 여기 한 무더기, 저기 한 무더기 하는 식으로 마을 곳곳에 쌓였다. 낮에는 피바람 속에서 처참한 비명이 끊이지 않더니 밤이 되자 광풍의 애절한 비명이 줄기차게 이어졌다.¹⁶

청말 민초 당시의 사회상은 여러 군벌이 각 지역을 점령한 상태이고, 토비들이 만행을 저지르는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원청』에서 잔혹한 폭력 서사의 양상으로 나타난 디스토피아의 재현은 독자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였을까? 아도르노는 “과국적 세계사의 상상적 복원”과 “어둠에 대한 예술의 참여”를 말하였다. 아도르노에게 과국적 세계사란 아우슈비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술(문학)은 이러한 어둠에 대해 참여를 해야 한다¹⁷고 했다.

위화가 『원청』에서 폭력 서사를 통해 디스토피아적 현실을 재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청』에 표현된 폭력 서사는 오늘날 사회의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각성과 반성적 사유(反思)를 가져왔다.¹⁸ 역사의 폭력은 언제든 등장할 수 있으며, 언제든 퇴장할 수 있다. 『원청』은 청말 민초시기, 혼란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디스토피아적 현실로 재현되는 폭력 서사를 통해 오늘날의 세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데에 그 가치와 의미가 있다. 위화에게 청말 민초시기 혼

16 余華, 『文城』, 208쪽. “十多個年輕女子被土匪輪番強姦后, 又被土匪用長刀砍落人頭, 齊家村一片火海, 噼啪爆裂聲經久不息. 六百多人口的齊家村有二百四十九人慘死, 河水紅了, 青草紅了, 樹葉紅了, 泥土紅了, 屍體橫七豎八, 東一堆, 西一堆, 滿村都是. 白天的齊家村腥風血雨, 哭號慘叫不絕於耳; 天黑后狂風吹來, 狂風的哀鳴聲聲不息.”

17 문광훈 지음, 『예술의 유토피아-아도르노의 문제의식』, 세창출판사, 2024, 147쪽.

18 高玉·肖蔚, 「論《文城》中的暴力敘事」, 『中國當代文學研究』, 2021年 第5期, 94쪽.

란한 사회상은 파국적 중국의 역사 시기이며, 이 디스토피아적 현실과 어둠에 문학이 참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인생의 보편적이기도 하고 특수한 상황이기도 한 잔혹한 서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고난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희망의 빛을 보는 것이다. 아울러 『원청』에서는 주어진 현실의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중국의 민중들은 ‘더 나은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꿈꾼다.

3. 공동체의 수호와 연대의식

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서로 간의 ‘사이’를 넘어 공존할 수 있는 장이자 공간이며,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사회를 의미한다. 공동체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유된 것이며, 공동의 선(善)을 추구한다.

『원청』에 등장하는 주요한 공동체는 ‘시진(溪鱻)’마을이다. 시진마을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는 구이민(顧益民)이다. 그는 일찍이 비단 무역에 종사했으며, 시진 상인회(商會)의 회장이다. 『원청』에서는 지방정부의 최고위층 관리가 해야 할 일을 구이민이 중심이 되어 시진을 통치하고 있다.¹⁹ 시진마을 공동체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위기에 빠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서 지도자인 구이민은 공동체의 운영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이민의 큰아들인 구통넌과 린상푸의 딸인 린바이자가 약혼식을

19 위화는 “중국의 남쪽 양자강(揚子江) 삼각주의 부유한 지역은 원말 때부터 상업활동이 매우 왕성했고, 명나라 청나라로 오면서 더 중요한 상업지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시진처럼 무정부 시기 지방 상업지역에서는 상인회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장악했다”라고 했다. 백원담·위화, 「『원청(文城)에서 살아가기 또는 글쓰기』, 『황해문화』 2023년 겨울호, 265쪽.

하기로 한 날이다. 린바이자를 딸처럼 돌보며 키워 준 천융량의 아내 리메이렌(李美蓮)이 린바이자에게 붉은 치마와 붉은색 비단 꽃신, 붉은 자수 저고리를 입혀서 예식 준비를 마쳐 두고, 두 아들인 천야오우(陳耀武)와 천야오원(陳耀文)에게 린바이자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한 뒤,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 약혼식 날, 장총과 권총을 멘 두 명의 토비가 린바이자를 납치해 가 버렸다. 토비들은 꽃단장을 한 린바이자를 훑어보며, “옷차림을 보니 500냥은 되겠어” 하며 데려갔다. 토비를 따라가며 린바이자는 리메이렌의 큰아들인 천야오우에게 “오빠, 어서 우리 아빠에게 알려. 500냥을 준비해서 날 데리러 오시라고 해”라고 말한다. 장을 보러 나왔던 리메이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토비들이 시진에서 사람을 납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황급히 집에 돌아오니, 천야오우가 토비들에게 린바이자가 끌려갔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리메이렌은 큰아들 천야오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얼른 따라가서 린바이자 대신 내가 가. 너는 남자니까 ‘맷돌질’을 당해도 아픈 거로 끝나지만, 린바이자는 ‘풀무질’을 당하면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거야.²⁰

집을 나온 열네 살의 천야오우는 토비들이 남쪽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 남쪽을 향해 날듯이 달려갔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질 정도로 큰길을 빠르게 내달린 천야오우는 토비의 대열을 만났고, 권총을 찬 토비에게

20 余華, 『文城』, 92쪽. “你快去, 快去把林百家替回來. 你是男的, 被他們搖電話就是疼一點: 林百家被他們拉風箱了, 以後一輩子都擡不起頭來.” (토비들은 여자 인질한테는 음문에 막대기를 넣다 뺀다 하는 ‘풀무질(拉風箱)’을 하고, 남자 인질한테는 항문에 막대기를 꽂아 계속 돌리는 ‘맷돌질(搖電話)’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으러 온 게 아니라 동생을 대신하러 왔습니다.”(중략) “동생은 오늘 약혼 식이라 저렇게 예쁘게 입었을 뿐, 평소에는 저렇게 잘 입지 못합니다. 여자애는 저만큼 가치가 있지 못하고요. 동생은 500냥이지만 저는 집안 장자라 1,000냥입니다. 500냥을 원하세요, 1,000냥을 원하세요?”(중략)

친야오우가 말하면서 옆으로 비키자 권총을 찬 토비가 소리쳤다. “야 이놈아, 이리 와. 500냥짜리 애는 됐다. 역시 1,000냥짜리 네놈을 데려가야겠어.”

토비는 린바이자의 줄을 풀어 준 뒤 친야오우를 묶었다.²¹

토비의 납치 소식에 시진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였고, 완무당에서 토비를 피해 시진으로 이사 온 사람들은 토비의 악행과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구이민은 토비들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민병단(民團) 결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관군의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선넨(沈店)과 시진 사이를 부지런히 오갔지만 전란 시기이다 보니 군관을 모셔 올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구이민은 상인회 명의로 민병단을 조직하고 사람을 보내 시골에서 충기를 사들였다.

그날 오후 구이민은 상인회의 주요 회원들을 집으로 불러 회의를 열고는 몸값을 납치당한 집에서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상인회가 매년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납치당한 건 그 사람이지만 내일은 내가

21 余華, 『文城』, 93쪽. “我不是找死, 我是來替我妹妹.”(中略) “她今天定親, 所以穿戴得好, 平日里她沒我穿戴得好. 她是女的, 沒我值錢, 我是家里長子, 她值五百銀兩, 我就值一千. 你們要五百呢, 還是要一千?”(中略) 陳耀武說着走到路邊, 那個挎短槍的土匪對他吼叫一聲: “你他媽的過來, 老子不要她那個五百, 老子就要你這個一千的.” 土匪解開林百家身上的繩子, 把陳耀武拉過去綁上.”

당할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중략)

“난세에 처했으니 시진 주민들은 한층 더 단결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구이민과 회의 참석자들은 몸값을 상인회에서 지급하고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 몸값을 전달할 사람도 상인회에서 선정하기로 했다.²²

시진마을의 공동체에서는 천야오우의 몸값을 전달할 인물로 세 사람이 거론되었다. 구이민은 액수가 각기 다른 스물세 장의 은표를 쩡완푸(曾萬福), 천순(陳順), 장핀싼(張品三)에게 주고는 휘날리는 눈발 속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그러나 몸값을 전달하러 간 쩡완푸는 바보처럼 낮이 나간 채 시진으로 돌아오고, 다른 두 명은 소식조차 끊어졌다.

구이민이 천순과 장핀싼의 행방을 알아보라고 파견한 사람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때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북양군(北洋軍)의 한 여단이 시진에서 200여 리 떨어진 스먼(石門)에서 패배해 후퇴하던 중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에게 가로막히자 시진으로 방향을 돌렸으며, 그 패잔병들이 가는 곳마다 살인과 방화, 약탈을 일삼아 주민들이 도망치고 있다고, 이 엄동설한에 주변 수십 리에서 피난민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였다. 피난민들 가운데 일부는 북양군 패잔병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했는지 들려주며 토비보다 더 심하다고 치를 떨었다.

구이민이 최고 지도자인 시진마을 공동체는 외부로부터 두 차례의 침략 위기를 맞게 된다. 첫 번째는 북양군 패잔병이 시진을 약탈하러

22 余華, 『文城』, 100쪽. “這天下午, 顧益民召集商會主要成員到家中開會, 他說贖金不應由被綁票的人家自己籌集, 應在商會每年所得的捐稅中劃出. 他說今天被綁的是他, 明天被劫的就是你.”(中略) “身處亂世, 溪鎮民衆更應團結一致, 有難共當.” 顧益民與大家商議后決定, 贖金由商會開支, 爲保證不出差錯, 送贖金的人也由商會挑選.”

왔을 때이고, 두 번째는 토비인 장도끼 무리가 시진을 침입해 왔을 때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인 구이민과 시진마을 민병단의 대응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린샹푸와 천융량이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구이민이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인을 시켜 두 사람을 부르러 왔다.

린샹푸와 천융량이 구씨 저택에 도착하니, 성의 중요한 인물들 대부분이 모여 있고 구이민이 한창 이야기 중이었다.(중략)

“제가 보기에 피난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패잔병이 후퇴하면서 벌이는 약탈을 사람은 피할 수 있어도 마을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북양군은 시진을 완전히 거덜 낼 수 있습니다. 피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곳곳의 집이나 담장이 무너져 있다면 손실은 더 클 거고요. 제 생각에는 모두 남아서 북양군을 친절히 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패해서 달아나고 있지만 어쨌든 북양군은 군인이지 토비가 아니니까요.”²³

북양군 패잔병이 시진을 약탈하러 올 것에 대비해 “북양군은 토비가 아니고 군인이니, 피난을 가지 말고, 그들을 친절히 대하자”는 구이민의 의견이 상인회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시진마을 공동체는 북양군 패잔병으로부터 마을의 재산을 지키고, 시진의 약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양군 패잔병을 환대하기로 전략을 세운다. 구이민은 상인회 사람을 파견해 성안의 크고 작은 술집과 음식점을 모두 빌리고 북양군을

23 余華, 『文城』, 107-108쪽. “林祥福和陳永良走進顧家大堂時,看見城里舉足輕重的人物大多坐在那里了,顧益民正在說話:(중략) “我以為出走躲避不是上策,潰敗的北洋軍沿途下來見物就搶見房就點,人可以躲開他們,城鎮是躲不開的,北洋軍會把溪鎮搶個精光燒個精光,只怕躲避過後來時,到處是斷牆殘垣,這樣損失更大.我以為大家應該留下來.對北洋軍熱情款待,雖說北洋軍落荒而逃,畢竟還是軍隊,畢竟還不是土匪.”

대접할 술자리를 준비하라고 일렀다. “마을 사람들도 구이민의 말이 옳다고, 북양군을 친절하게 대접하면 시진이 위협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양군 관병 1,000여 명이 시진 북문으로 줄줄이 들어왔다. 긴 대열이 모두 들어오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 한파가 몰아치는 계절임에도 사병 대부분은 홑옷만 입고 있었다. (중략) 여단장과 젊은 부관 기타 군관 스무 명가량은 구이민의 집으로 초청돼 대접받았다.(중략) 구이민은 떠보듯 말했다.

“여단장님, 날이 이렇게 추운데 사병들 대부분이 아직도 홑옷을 입고 있더군요. 혹시 사병이 배고프고 추워서 잘못을 저지르면 나중에 위에서 여단장님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까요?”

여단장이 아편을 피우며 대꾸했다. “이미 막다른 길에 내몰렸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흘 내에 여단의 모든 장병에게 동복을 맞춰 주고 한 달 치의 군비를 제공하겠습니다. 여단장님은 담당자를 불러 어떻게 처리할지,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봐 주십시오.”

“담당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깐요 동복과 한 달 치 군비는 은화 6만 냥이면 충분합니다.”²⁴

그 결과 구이민은 사흘 내에 동복 1,000여 벌과 군비를 준비하겠다

24 余華, 『文城』, 109-110쪽. “一千多北洋軍官兵從溪鎮的北門魚貫而入, 漫長的隊伍走了半個時辰。在這寒冬季節, 大多士兵還是身穿單衣。(中略) 旅長和那位年少英俊的副官以及二十多個軍官被顧益民請到家中, 顧益民設家宴招待旅長和他的手下。(中略) 在旅長吸食鴉片烟的時候, 顧益民試探地說: “旅長, 這寒冬臘月的, 貴部的士兵大多還穿着單衣, 萬一士兵因為飢寒而犯了錯誤, 日后上面追究下來, 責任還不都在旅長身上?” 旅長吸着烟說: “這窮途末路之時, 我又能如何?” 顧益民說: 我願在三天之內, 將全旅官兵的冬衣一律制發, 軍餉照額發放一個月。請旅長叫軍需前來, 詢問如何辦理, 共需多少銀兩。” 旅長說: “不用問軍需, 我深知本旅情況, 換發一季冬衣和一個月的軍餉六萬銀兩够了。””

고 약속했다. 그는 시진의 재봉소에서는 장교의 동복만 만들라 하고 사병의 동복은 상인회에서 가정주부 1,000여 명을 조직해 제작했다. 구이민은 상인회 마을의 여관과 창고, 점포를 임시 병영으로 쓸 수 있도록 모두 비우라고 지시했다. 또 양갓집 부녀자가 화를 입지 않도록 상인회에서 마을의 기루 두 곳을 빌려 장병들의 열기를 식혀 주라고도 했다.

공동체를 운영하는 구이민의 방식은 상인회의 회장답게 실용적이고 실리적이다. 마을 공동체가 외부로부터의 약탈을 피하도록 지켜내고 단결하여 공동체를 수호하자고 호소하며, 그것을 마을의 주요 인물들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또한 토비에게 납치되어 간 시진 사람의 몸값은 상인회가 거둔 세금으로 지불하고, 몸값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도 상인회에서 선정하자고 한다. 구이민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그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진에서 주민을 납치해 간 토비는 총 세 무리였고 각 무리 두목의 별명은 ‘물수제비(水上漂)’와 ‘표범(豹子李)’, ‘스님(和尚)’이었다. 표범은 인질들을 잔인하게 다루었지만, 스님은 토비들 중에서도 선한 축에 들었다. 몸값을 가져온다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토비들은 인질들의 귀를 한 쪽씩 자르기 시작했다. 천야오우는 물수제비가 면도칼로 그의 귀를 이마 쪽에서부터 긁는 것을 느꼈고, 스님이 귀가 있던 자리에 재를 덮어 지혈해 주었다. 천야오우는 토비들에게서 도망쳐 나와 집으로 돌아왔으나, 한쪽 귀가 없는 상태였다.

토비의 침략을 막기 위해 구이민은 시진 민병단을 조직했다. 구이민은 상인회의 이름으로 북양군이 패한 뒤 유출된 총기와 탄약을 구매했다. 민병단은 서른 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토비한테 납치되었다가 돌아온 인질 열아홉 명이 지원했다. 귀가 하나밖에 없는 열아홉 명이 모두 채용되었고, 나머지 열한 명 속에는 농부도 있고 집꾼, 건달도 있었다.

구이민은 민병단의 단장으로 주보충(朱伯崇)이라는 사람을 초빙했다. 주보충은 청나라 의용군에서 십장(什長)²⁵을 맡았고 환계(皖系)군벌²⁶의 서북군에서 연대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그는 백발에 흰수염을 기른, 몸집이 크고 눈빛이 형형한 쉰 살 정도의 남자였다. 민병단은 전부 구식이지만 38식 소총, 한양조 보병총, 조총으로 무장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했다. 주보충은 제일 먼저 총을 오른쪽 어깨에 메고 걷는 법부터 교육했다.

토비 중에 장도끼(張一斧)라는 자가 악명을 떨쳤다. 한때 이름을 떨쳤던 물수제비와 표범은 장도끼의 흉포함에 벌벌 떨다가 앞다퉈 그의 휘하로 들어갔다. 장도끼는 시진을 치기로 마음먹었다. “완무당에 제대로 된 화물선이 없어. 주변 마을 부자들도 전부 시진으로 숨어들어서 소득이 없고. 망할 시진만 살찌고 있다.”²⁷는 것이 그 이유였다. 장도끼가 토비 100여 명을 이끌고 높은 사다리 두 개와 젖은 이불 두 수레, 화포 한 문을 가지고 시진의 남문으로 몰려왔다. 마침내 민병단과 대치가 시작되었고, 주보충은 민병단 열일곱 명을 데리고 남문 방어에 나섰다. 열 명은 성벽 위에, 일곱 명은 성문 아래에 배치하고 토비가 성벽 위에서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민병단이 단단하게 성문을 지키니, 장도끼가 화포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고, 쿵 하는 엄청난 화포소리와 함께 성벽이 뚫리더니, 수장인 주보충이 다친 것을 발견했다. “주보충의 배에 구멍이 뚫려 창자가 김을 내뿜으며 흘러나오고 있었다.”²⁸ 주보충은 바

25 옛날 군대에서 병졸 열 사람을 통솔하던 지휘자.

26 중화민국 시절 북양군벌의 일파.

27 余華, 『文城』, 166쪽. “萬畝蕩沒什麼貨船了, 周邊村庄的富戶也都躲進了溪鎮, 沒有油水了, 只有他媽的溪鎮最肥.”

28 余華, 『文城』, 172쪽. “朱伯崇的肚子被炸出一個口子, 冒着熱氣的腸子出來.”

닥에 앉은 채로 계속 지휘했다. 주보충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예감하고 자신의 모제르총을 대장장이 쉬 씨(徐鐵匠)에게 건네준 뒤 단장에 임명하고 대신 전투를 지휘하라고 했다. 주보충은 “명심하게. 철천지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네. 자네들은 토비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사수해야 해”²⁹라고 죽기 직전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민병단의 열두 병사는 네 시간 가까이 필사적으로 싸웠고 마지막에는 대장장이 쉬 씨와 그의 제자 쑤핑싼(孫鳳三)은 여덟 군데나 부상을 입었고 대장장이 쉬 씨는 눈알이 튀어나왔다. 그는 모제르총을 쑤핑싼에게 건네며 말했다. “난 눈이 멀었어. 주 단장의 총을 너에게 물려주고 너를 단장에 임명한다.”³⁰

토비 100여 명을 이끌고 시진을 맹공격했음에도 함락할 수 없게 되자 장도끼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철수를 명했다. 쑤핑싼은 죽기 직전에 모제르총을 구이민에게 건네며 힘없이 말했다. “이제 제가 죽어 가니 단장직을 회장님께 넘깁니다.....사부님과 제 묘비에 ‘단장’이라고 새겨 주십시오.”³¹

장렬하게 전사한 민병단 열여덟 명은 시산에 묻히지 않았다. 구이민은 누가 시진을 지켰는지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들을 성황각 앞 공터에 묻었다. 성황각 앞에 묘비 열여덟개를 세웠다.³²

29 余華, 『文城』, 172쪽. “記住了, 深仇大恨, 不共戴天, 你們要死守城門, 決不能讓土匪攻進來。”

30 余華, 『文城』, 173쪽. “我瞎了, 我把朱團領的槍給你, 任命你爲團領。”

31 余華, 『文城』, 175쪽. “我要死了, 我任命你爲團領……要在師父和我的墓碑上團領。”

32 余華, 『文城』, 175쪽. “十八個壯烈犧牲的民團士兵沒有葬在西山, 顧益民把他們葬在城隍閣前的空地上, 他要百姓記得是誰保衛了溪鎮, 城隍閣前豎起了十八塊墓碑。”

공공성(Publicness)은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규범이자 가치이다. 선과 악이 충돌하고, 때로는 옳음과 옳음이 경합하는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은 공생과 화합의 준거로서 공공성을 필요로 한다. 개인의 '선(善)'이 공통분모를 찾아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자 우선순위를 배분하기 위한 기본적 원리로 공공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사회적 안전을 지배하는 권력 계층의 탐욕으로부터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안전망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의 무책임성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³³

민병단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시진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였다. 시진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마을의 재산을 지키며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려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공동체의 수호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미래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을 지나치게 훼손시키지는 말자는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스며든 것은 아닐까.

시진에서 패배한 장도끼는 여덟 명이 드는 가마를 타고 다니는 구이민이 은근히 부러웠다. 결국 그를 납치하기로 작정하고, 구이민 집안의 선산을 파헤치며 구이민을 유인하여 납치했다. 마을의 최고 지도자인 상인회 회장 구이민이 장도끼에게 납치되었을 때, 누군가는 장도끼가 요구하는 돈을 가지고 구이민을 구출하러 가야만 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갈 것인가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린상푸에게 멈추었고, 린상푸는 순간 외동딸 린바이자의 환영을 본

33 이종수, 『공동체-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박영사, 65쪽.

듯했으나, 구이민을 구하러 자신이 가야 함을 직감했다. 이때 그는 죽음까지도 예감했다. 딸아이의 미래 시아버지가 될 구이민, 시진마을의 최고 지도자인 구이민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나선다. 린 상푸는 “시진에 민병단은 없어도 구이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³⁴ “회장님은 구해 와야지요. 다만 모두의 목숨을 버리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천년 된 시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³⁵라고 말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장도끼는 구이민의 몸값으로 “돈은 필요 없어. 우린 시진 민병단의 충기를 원해.”³⁶라고 말하며 “구이민이 타는 여덟 명이 드는 가마도 추가”³⁷로 요구했다. 상인회에서는 민병단의 충기를 내어줄 수는 없으니, 관군과 비밀리에 거래하여 서른 자루의 충기를 더 구하기로 했다.

공적 영역인 공동체는 폭력에 대해 끈질기게 정의의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³⁸ 시진마을의 사람들은 시진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북양군의 패잔병을 환대의 전략으로 맞이하여 마을의 피해를 줄였고, 마을의 가정주부들은 패잔병의 동복을 제작하면서 연대의식을 표출하였다. 또한 민병단이 성벽에서 장렬하게 전투에 임할 때도 마을의 남자들은 쇠몽둥이와 칼, 각목을 들고 “토비를 잡으러 가자”³⁹라고 소리치며 전투에 참여하였다. 시진 공동체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공동체를 수호하려

34 余華, 『文城』, 185쪽. “溪鎮可以沒有民團, 不可以沒有顧益民.”

35 余華, 『文城』, 185쪽. “顧會長是一定要贖回來的, 只是不能以全城人性命去贖回, 不能毀掉溪鎮千年基業.”

36 余華, 『文城』, 183쪽. “我們不要你的光洋, ……只要溪鎮民團的槍支.”

37 余華, 『文城』, 184쪽. “又令顧益民在血書里添上八擡大轎.”

38 주디스 버틀러 지음, 윤조원 옮김, 『위태로운 삶-에도의 힘과 폭력』, 필로소피, 150쪽.

39 余華, 『文城』, 184쪽. “殺土匪去.”

는 연대의식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다.

구이민을 구하러 떠났다가 죽음을 맞이한 린샹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기도 했지만, 민병단의 단장인 주보충의 죽음과 구이민의 죽음은 공동체의 우환 앞에서 마을 주민들이 단결하여, 공동체를 수호하려는 의지이며, 그 연대의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4.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희구

유토피아(Utopia)는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으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를 말한다. 유토피아는 실제 장소를 가지지 않은 배치로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유토피아에서 ‘유(U)’는 희랍어로 ‘없음’이나 ‘아님’을 뜻하고 거기에 장소를 의미하는 ‘토피아(topia)’가 결합하여 ‘실재하지 않는 장소’를 가리킨다. 결국 유토피아는 현실의 ‘어디에도 없는 곳’이란 뜻으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향(理想郷)으로 현실의 절대적인 부정성의 공간이자 현실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상 속의 장소인 것이다.⁴⁰

위화는 ‘이상적인 중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상적인 중국은 바로 ‘계약 정신’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중이 있는 사회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는 굉장히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로 존중하고 계약이 존재한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계약 정신, 존중)가 현재의 중국에 가장 부족한 두

40 이시환, 「헤테로토피아와 고향유토피아」, 『中國學』, 第78輯, 2022. 342쪽.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중국의 문화전통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가지라고 생각해서, 이 사상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⁴¹

『원청』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바람은 ‘사람과 사람의 평등한 인간관계’와 ‘온정(溫情)서사’로 표현된다.

린샹푸는 대부호이고 지주이지만, 농사도 짓는 농민이며,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목공 솜씨를 바탕으로 목공도 열심히 배워, 후에 남쪽 시진마을에서는 천용량과 함께 목공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해결하였다. 린샹푸의 고향은 황하(黃河) 북쪽에 있었다. 고향을 떠나올 때, 북방의 467무(畝)의 땅을 저당 잡힌 뒤 은표(銀票)를 받고, 자신의 북방 집의 집사인 텐다(田大)에게 “나 대신 집과 땅을 잘 관리해 주게.”⁴²라고 말하며 집문서를 맡긴다. 충직하고 성실한 집사 텐다는 린샹푸가 구이민을 구하러 가기 전에 보낸 편지를 받고 득달같이 시진으로 왔으나, 린샹푸의 시신과 함께 북방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지주와 소작농이며 집사의 관계였던 린샹푸와 텐다의 관계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텐다는 린샹푸와 맺은 계약을 성실히 지켜서, 북방의 땅에서 얻은 이익금을 들고 시진에 왔다.

샤오메이가 린샹푸와 함께 살다가 처음 집에서 사라졌을 때, 샤오메이는 린샹푸의 부모와 린샹푸가 열심히 모아 놓은 금괴를 절반 가까이 훔쳐 가 버렸다. 임신했다며 다시 린샹푸에게 돌아왔을 때, 샤오메이는 금괴를 가져오지 않았다. 린샹푸는 “금괴는요?”, “금괴를 누구한테 훔쳐

41 위화·김지운 대담, 김지운의 지식Play <https://www.youtube.com/watch?v=3golqfcN2E&t=2s>

42 余華, 『文城』, 50쪽. “你就替我照應房屋管好田地.”

요?”, “아창과 당신은 어떤 관계죠?”⁴³라고 추궁했으나, “오빠예요.”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 금괴에 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으나, 더 이상 샤오메이를 끈질기게 추궁하지는 않았다. 샤오메이에 대한 일종의 존중이었을까, “내 아이, 린씨 집안의 후손을 가졌으니……”⁴⁴라고 생각하며, 금괴에 관하여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았다.

시진마을에서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천용량네 식구들이 시진을 떠나 치자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두 집의 자녀인 천야오우와 린바이자 사이에 연애 감정이 싹트자, 린상푸는 딸을 상하이의 기숙학교에 보내고, 천용량은 치자촌으로 거처를 옮겼다. 천용량이 떠나갈 때, 린상푸는 완무당 치자촌의 200무 땅을 천용량 명의로 돌린다는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린상푸와 텐다는 지주와 집사·소작농의 관계이고, 린상푸와 천용량의 관계는 목공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의 관계이지만, 천용량이 목공소를 차리는 자본을 대었다는 점에서는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린상푸와 샤오메이의 관계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이다. 샤오메이는 시진마을에서 옷 수선집을 하는 아창의 집에 민며느리로 들어와서, 아창과 결혼하였다.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친정집으로 돌아온 샤오메이를 아창이 잊지 못하고 따라온 것이다. 특이한 점은 『원청』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는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이나,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쟁이나, 계급의 모순이 없다는 점이다.⁴⁵ 그들 공동의 적은 다만 토비일 뿐이다. 『원청』에는 이들 주요 인물들 이외에도 시진의 마을 사람들은 서로 간에 싸움도 갈등도 없으며, 어느 인간사회에서나

43 余華, 『文城』, 39쪽. “金條呢?”, “你把金條給誰了?”, “阿強是你什麼人?”

44 余華, 『文城』, 38쪽. “想到你已經有了我的骨肉, 林家有了傳人, 也就……”

45 許子東, 「想像農村的“烏托邦”:余華《文城》」, 『小說評論』, 2024年 第4期. 39쪽.

있을 법한 욕망과 탐욕으로 인한 분쟁이 없다. 시진마을 사람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부딪힘, 혹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이 보이지 않고, 선량한 사람들로만 그려진다. 일종의 유토피아적 형상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을 기반으로 평등한 인간관계를 『원청』에서 그려낸 것은 중국 사회에 바라는 작가의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바람의 표현이라고 짐작된다. 중국 근현대문학사에서 포악하고 욕심 많은 지주가 아니라, 선량하고 근면한 새로운 지주(地主)의 형상이 『원청』에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원청』에 묘사된 온정(溫情)서사의 최고봉은 천용량의 아내 리메이렌이 토비에게 잡혀간 린바이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큰아들을 대신 보내는 장면이다. 리메이렌에게 린바이자는 친딸과 다름없는 아이이다. 어렸을 때부터 리메이렌의 젖을 먹고 자란 린바이자가 토비에게 잡혀간 사실을 안 그녀는 천야오우에게 “린바이자가 ‘풀무질’을 당하면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니, 아들에게 대신 가라고 한다. 그 결과 토비에게 인질로 잡혀간 아들은 한쪽 귀를 잃어버리게 된다. 남의 딸을 구하기 위해 친아들을 희생시키는 일은 어느 부모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지만, 리메이렌에게 린바이자는 가슴으로 품은 애뜻한 딸이다.

북방 청년 린샹푸는 돌아가신 부모가 남겨 준 전답과 유산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질 녘, 샤오메이와 아창이 린샹푸의 집을 찾아와 “하룻밤만 묵게 해 달라”고 하기 전까지, 린샹푸는 개인적으로 혼인할 여성을 찾으며 “훼손되지 않은 삶”⁴⁶을 살고 있었다. 샤오메이가 아이를 낳고 떠나 버린 것은 린샹푸에게는 “부서진 행복의 약속”⁴⁷이다.

46 문광훈 지음, 『예술의 유토피아-아도르노의 문제의식』, 세창출판사, 2024, 149쪽.

47 위의 책, 148쪽.

린샹푸가 찾아 나서는 원청은 딸에게 엄마를 찾아 주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에게는 부서진 행복을 온전하게 되찾는 것이기도 했다. 『원청』에서, 린샹푸에게는 샤오메이가 살고 있는 도시 ‘원청’이 유토피아인데, ‘원청’은 ‘어디에도 없는 도시’이다, 린샹푸는 샤오메이가 쓰는 말투와 비슷한 지역인 ‘시진(溪鎮)’마을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는 장소인 것처럼, 오랜 세월 샤오메이를 찾아다녔으나 어딘가에 있으리라 짐작되는 원청은 없고, 린샹푸는 원청이 거짓말이었으리라는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아창이 다시 물었다. “그는 왜 원청에 안 갔을까?”

샤오메이가 반문했다. “원청이 어디인데?”

아창도 원청이 어딘지 몰라서 고개를 저었다.

아창이 물었다. “그 사람한테 시진(溪鎮)에 대해 말한 적 있어?”

샤오메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그는 시진을 몰라.”(중략)

그는 린샹푸가 시진을 찾아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이며, 원청으로 가려 한다고 생각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원청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⁴⁸

아창과 샤오메이가 린샹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때, 그들은 부부가 아니라 남매라고 린샹푸를 속였으며, 어디서 왔느냐는 린샹푸의 질문에 아창은 남쪽 물의 도시 ‘원청’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원청은 린샹푸가 도달해야 하는 이상향이자 부서진 행복의 약속을 되찾을 수 있

48 余華, 『文城』, 323-324쪽. “阿强再次問: “他爲什麼不去文城?” 小美問: “文城在哪里?” 阿强也不知道文城在哪里, 他搖了搖頭. 阿强問小美: “有沒有與他說過溪鎮?” 小美想了一會兒說: “他不知道溪鎮.”(中略) 他感到林祥福不是找到溪鎮來的, 林祥福只是從溪鎮經過, 林祥福要去的地方是文城. 阿强松了一口气, 說道: “沒有人知道文城在哪里.”

는 장소였다. 그러나 린상푸는 시진마을 상인회의 회장인 구이민의 몸값을 치르고, 그를 구출하러 갔다가 애석하게도 장도끼의 손에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원청』은 1부와 2부가 다른 서사 관점을 보여 준다. 1부 〈원청(文城)〉은 린상푸의 관점에서 그의 일생이 전기소설의 형식으로 그려진다. 2부의 〈또 하나의 이야기(文城 補)〉에서는 샤오메이의 관점에서 소설이 전개된다. 2부에서는 반전 서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린상푸가 그리도 찾아다녔던 샤오메이가 아창과 함께 시진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샤오메이와 아창의 죽음은 동사(凍死)하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눈이 펄펄 내리는 마을 사당 공터에서 마을의 제를 지내다 얼어 죽는 묘사는 한편으로는 너무 어처구니없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여주인공 샤오메이를 얼어 죽게 함으로써, 여주인공 샤오메이의 속죄를 그려냈다.

눈밭에서 절을 하는 중에 추위 때문에 다리의 감각이 느껴지지 않자, 아창은 샤오메이에게 말한다.

“집에 가자”

샤오메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날씨를 위해 기도한 뒤 린상푸를 위해 빌었다. 린상푸가 딸을 안고 그 먼 길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너무 아프고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그녀는 린상푸에게 말했다.

‘다음 생에도 당신 딸을 낳아 주고 그때는 아들도 다섯 명을 낳아 줄게요……. 다음 생에 당신 여자가 될 자격이 없다면 소나 말이 되어, 당신이 농사를 지으면 밭을 갈고 당신이 마부가 되면 마차를 끌게요. 채찍질해도 돼요.’

아창은 딱딱하게 굳은 팔을 샤오메이의 옆드린 등에 올려놓은 뒤 짚고 일어나려고 힘을 주었다. 하지만 다리에서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가 다시 샤오메이에게 말했다.

“돌아가자.”

샤오메이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린상푸를 보았다. 린상푸는 그녀의 앞에 서서, 그녀에게 말하였다.

“집으로 돌아갑시다.”⁴⁹

위의 예문에서 샤오메이가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남편인 아창의 목소리가 아니라, 린상푸의 목소리를 환청으로나마 듣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위의 예문으로 독자는 린상푸에게 속죄하는 샤오메이의 속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복원과 회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위화는 “그 관계라는 것은 형성되는 순간에 파괴되고, 죽은 뒤에도 재건이 될 수 있다”, “관계라는 것은 살아서도 복원할 수 있고, 죽어서도 복원할 수 있다”, “관계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형성되고, 그리고 파괴되고, 재건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재건되는 과정이 것처럼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이다”⁵⁰라고 하였다.

린상푸와 샤오메이, 두 사람은 샤오메이가 떠난 후에 살아서는 못 만났지만, 죽어서는 샤오메이의 묘비를 지나는 길에서 린상푸의 관이 서로 교차하면서, 17년 만에 만나게 된다. 린상푸는 원청을 찾아 길을 떠났지만 원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원청을 찾았

49 余華, 『文城』, 338-339쪽. “回家去.” 小美沒有反應, 她祈求着天之后祈求林祥福了, 林祥福懷抱女兒千里迢迢尋找而來, 讓她心痛不已, 又充滿負罪之感, 她在心里對林祥福說: “來世我再為你生個女兒, 來世我還要為你生五個兒子……來世我若是不配做你的女人, 我就為你做牛做馬, 你若是種地, 我做牛為你犁田; 你若是做車夫, 我做馬拉車, 你揚鞭抽我.” 阿強想站起來, 他僵硬的手臂攔在小美跪拜的背上, 支撐着要站起來, 但是他的雙腿沒有知覺, 他再次對小美說: “回家去.” 小美仍然沒有反應, 她看見林祥福了, 林祥福就站在她面前, 對她說: “回家去.”

50 백원담·위화, 「원청(文城)에서 살아가기 또는 글쓰기」, 『황해문화』 2023년 겨울호, 256~257쪽.

다고 볼 수도 있다. 텐씨 형제들이 린상푸의 시체를 관에 넣어 북쪽 고향으로 데려갈 때, 형제들이 끄는 수레 위의 관에 누운 채, 샤오메이의 무덤을 마주하게 되는데,⁵¹ 그 순간이 린상푸가 원청을 찾은 때가 아닐까. 그 담담한 묘사가 슬프고 안쓰러워서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린상푸의 관과 샤오메이의 묘지, 그 교차 지점에서 린상푸와 샤오메이의 새로운 관계성이 복원되고 회복된다. 죽은 뒤에도 재건되고 복원되는 관계의 회복성, 린상푸의 관과 샤오메이의 무덤이 만나는 순간에 두 사람의 관계성은 복원되어 재건되며 회복된다.

린상푸에게는 그 순간이 유토피아를 찾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살아생전에는 이루지 못했으나 죽어서라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 나가는 말

이 글은 위화의 『원청』에서 ‘유토피아와 공동체에 대한 상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디스토피아의 재현과 폭력 서사의 의미, 공동체의 수호와 연대의식, 그리고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회구, 이 세 가지 측면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디스토피아의 재현과 폭력 서사의 의미를 통해서는 정말 민초시기의 혼란한 사회상과 어두운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세계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독자에게 환기시켰고, 공동체의 수호와 연대의식에서는 각자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는 곳이

51 余華, 『文城』, 347쪽. “他們停下棺材板車, 停在小美和阿強的墓碑旁邊. 紀小美的名字在墓碑右側, 林祥福躺在棺材左側, 兩人左右相隔, 咫尺之間.”

니, 온전한 보전을 위해 연대하는 의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과 희구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한 관계성과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규명했다.

『원청』은 미완의 작품이고, 작품의 결말은 열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린바이자나 천야오 같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담지 않았다. 유토피아에 관한 서사는 어떻게 하면 그 시대의 사회 병폐와 모순이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는 데에서 시작한다. 『원청』은 위화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중국에 부족한 ‘계약 정신’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평등한 인간관계를 꿈꾸며,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온정서사를 그려내고 있다.

투고일: 2024.12.09. 심사기간: 2024.12.20.~2025.01.03. 게재확정일: 2025.01.09.

| 참고문헌 |

- 余華, 『文城』,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21.
- 위화 지음, 문현선 옮김, 『원청』 푸른숲, 2022. (UCI: G901:A-0010935288)
- 문광훈 지음, 『예술의 유토피아—아도르노의 문제의식』, 세창출판사, 2024.
- 임철규 지음, 『왜 유토피아인가』, 한길사, 2009. (DOI: 10.978.89356/61367)
- 에른스트 블로흐 지음, 박설호 옮김, 『희망의 원리』, 열린책들, 2004.
- 조르조 아감벤 저, 이정진 옮김, 『노래하는 공동체』, 꾸리에, 2017. (DOI: 10.978.8994682/143)
- 카를 만하임 저, 임석진 옮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김영사, 2012. (DOI: 10.978.89349/59038)
- 김봉연, 「위화(余華) 소설의 상수와 변수—《원청(文城)》을 중심으로」, 『中國語文論譯叢刊』 第53輯, 2023. (DOI: 10.35822/JCLLT.2023.07.53.31)
- 김현주·윤호연, 「《원청(文城)》에 묘사된 하늘과 땅의 상징성 試探」, 『동아인문학』, 68집, 2024.
- 박설호, 「유토피아, 그 개념과 기능」, 『이화어문문집』 제18집, 2000.
- 백원담·위화, 「《원청(文城)》에서 살아가기 또는 글쓰기」, 『황해문화』 2023년 겨울호.
- 신의연, 「余華 소설 속 ‘아버지 상’의 변화와 의미 고찰」, 『中國學論叢』 第67輯, 2020. (DOI: 10.23004/kchcu.2020..67.005)
- 심혜영, 「위화(余華)의 『제7일(第七天)』—공간 사유, 상상력의 특징과 희망의 정념」, 『中國現代文學』, 第82號. 2017.
- 이시찬, 「中國文學史에서 傳奇 명칭에 관한 재고찰」, 『漢文教育研究』, 제26號, 2006. (UCI: G704-000655.2006.26.1.012)
- 이시환, 「헤테로토피아와 고향유토피아」, 『中國學』, 第78輯, 2022. (DOI: 10.14378/KACS.2022.78.78.16)
- 許子東, 「想像農村的“烏托邦”:余華《文城》」, 『小說評論』, 2024年 第4期.
- 郭雨欣, 「《文城》與余華的敘事限度」,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3年 第24卷第3期.

- 翟文輝·陳琳, 「烏托邦情結與《文城》《邊城》的歸鄉書寫」, 『湖南第一師範學院學報』, 2023年 第23卷第2期.
- 王俊利, 「從個人史·家族史到溪鎮共同體的建構—論余華小說中地主形象的演變」, 『衡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022年 第43卷第4期.
- 陳蔚文, 「『文城』透支了余華的文學信譽」, 『文學自由談』, 2021年.
- 郭雨欣, 「『文城』與余華的敘事限度」,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3年 第24卷.
- 高玉, 「余華長篇小說新作《文城》的承續與創新」, 『河南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3年 第63卷第1期.
- 高玉·肖蔚, 「論《文城》中的暴力敘事」, 『中國當代文學研究』, 2021年 第5期.
- 叢治辰, 「余華的異變或回歸—論《文城》的歷史思考與文學價值」, 『中國當代文學研究』, 2021年 第5期.
- 張翔, 「敘事“迷局”中的共同體與團結—余華《文城》的敘事留白及意涵」, 『文藝理論與批評』, 2021年, 第6期.
- 王俊利, 「從個人史·家族史到溪鎮共同體的建構—論余華小說中地主形象的演變」, 『衡陽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022年 第43卷第4期.
- 위화, [특별대담] 중국 현대문학 대표 작가 위화, 연세 인문학 아카데미, <https://www.youtube.com/watch?v=xmQi3rqdiHg>
- 위화·김지윤 대담, 김지윤의 지식Play <https://www.youtube.com/watch?v=3golqefcN2E&t=2s>

| Abstract |

Imagination of Utopia and Community: Focusing on Yu Hua's 『Wencheng』

Kim Myoung-Hee

This thesis aims to examine how the ‘imagination of utopia and community’ was shown in Yu Hua’s 『Wencheng: A Lost City』. Moreover, this thesis explored how the three aspects such as the meanings of dystopian representation and violence narration, protection of community and consciousness of solidarity, and imagination and desire of utopia, were shown in the novel.

Through the meanings of dystopian representation and violence narration, the novel aroused the importance of world peace by fully revealing the dark reality and chaotic social situation in the late Qing and early republican China. In the protection of community and consciousness of solidarity, the novel showed that the consciousness of solidarity would be needed to fully preserve the community of each one as it should be handed down to descendants. Furthermore, in the imagination and desire of utopia, it revealed the importance of equal relationship and respect between people.

『Wencheng』 is an incomplete work, and the end of this work

is open structure. The author did not include a story about the main character's children generation. The narration of utopia basically begins from deep interest in how to solve social evils and contradictions of the time. 『Wencheng』 shows compassionate narration for better community by dreaming of equal human relationship based on the 'spirit of contract' and 'respect' that are insufficient in ideal China Yu Hua is thinking of.

Key word

Yu Hua, Wencheng, Utopia, Community, Equal Relationship